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제1급~제14급 까지 지급을 하며,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시점의 상병상태에 대한 소견으로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해 장해등급을 산정하게 되며, 제14급~제8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7급~제4급까지는 일시금 및 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3급~제1급까지는 연금으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7급~제4급까지는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을 선급할 수 있으며,

제3급~제1급까지는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Q 개인지급차량 운전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A 올해부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도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산정은 노동부 고시 중소기업사업주 기준임금으로 산정된다. *한국중소기업노무법인한솔사무소(031-877-78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甲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는 월 2%, 변제기일은 10개월 후로 하는 차용증서를 교부받았으나, 甲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아 액면금 500만원에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다시 교부 받았습니 다. 그러나 甲의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야 甲이 20평이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어음법 제77조, 제70조).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일종의 채무명의가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관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92대89).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정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경과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약속어음은 甲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0. 5. 22. 89다13322). 원안채권, 즉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어음채권과 병존하게 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031-874-1662)

한·방·상·식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봄철의 건강관리

계절의 변화는 모든 만물에게 변화를 요구하듯이, 사람 역시도 대자연의 일부이기에 외부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각각의 계절은 각각 다른 영향을 준다. 봄의 기운은 목에 속하여 따뜻하고 모든 만물을 낳게하며 여름의 기운은 화에 속하여 무덤과 만물을 성장시키며 가을의 기운은 숲에 속하여 마르기 쉽고 모든 것을 밟아 추수하듯 거두어 들이며 겨울의 기운은 수에 속하여 차갑고 그 씨를 저장하여 생명을 간직한다. 이렇게 변화되는 계절에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 이 변화를 따른다. 만일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과잉반

응이 생기면 이는 곧 탈이남(體弱)을 의미한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기는 사람의 1년 건강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므로 그 중요성이 지못 크다. 봄이 되면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긴장을 풀게 되며 그 기운을 표면에 드러내며 화려한 계절이 되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들뜨게 한다.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나른해지고 식욕도 감소된다. 또한 미비성 결핍성 질환이나 소화기 허약자 피부병 알러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하기가 심상이다.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지금쯤에서 미리 1년의 건강을 위해 기혈을 보하는 약물의 복용도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서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데 지금 현대인에게도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이 한의사에 쓰여 있다. 봄철달을 쬐이라 하며 하늘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고 만물이 영화롭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산보하고 머리와 몸을 꼭 조이지 않으며 조려 봄기운과 같이 생하게 하고 죽이지 말며 주기는 하되 뱃지 말며 생활지인 정 발하지 않으면 이것이 春氣에 응합이라 하며 養生의 도가 된다 하겠다. 또한 이런 말도 있다. 사람이 심신이 피로하지 않으면 병나지 않고 술을 마시되 크게 취하지 않아야 하고 식사 뒤에는 100보쯤 걷고 손으로 자주 배를 문지르며 두발을 100회쯤 빓고 기거하며 바람이 들지 않게 하고 밤마다 발을 씻고 눕는다. '포식은 이익이 없고 생각이 너무 골뎠지 말며 침을 뱉지 말고 편식하지마라' 하겠다. 몸과 마음의 안정이 가장 귀한 법이고 재물은 분수가 있으니 스스로 충분함을 알리고 하겠다. *의정부한방병원 (031-820-7200) www.uj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사이버상의 성폭력 대처법

첫째,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1. '무 성적(중성)인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2.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3. 개인 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4. 가능한 낯선 사람에게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는 없으며 원치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 또는 인터넷을 그만 둘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만나지는 유혹을 특히 조심합니다. 넷째,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1. 친구와 함께 만나거나 공적 장소에서 만나야 합니다. 2.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려라 (통신 내 동호회 또는 대화실에서 알게 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이상한 아이디나 내용으로 접근하면 대화를 나누지 말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그룹이나 대화방에 참여하기 전에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그 자신의 성격에 대해 미리 파악해 둡니다. 일곱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차단합니다. 1. 수신거부기능, 특정 내용이나 발신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삭제하거나 거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여덟째,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니다. 행위자는 자신감 없고, 우유부단하며, 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1. 아홉째, ISP와 대화방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오규성



수전증

쉬운 말로 진전증이란 우리말로 떨림증이라 합니다. 주로 손을 떠는 경우가 많으므로 흔히 수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 이외에도 머리, 발, 얼굴, 턱, 혀, 몸통 심지어 목소리를 내는 성대까지 다양한 부위에 떨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개 글씨를 쓸 때 떨림증을 느끼게 되는데, 편안한 상태에서는 잘 쓰던 글씨가 날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떨리게 되어 곤혹스러운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인 같으면 회

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받을 때 술잔을 든 손이 떨리게 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은 의외로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질병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 병으로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더욱 심각하지요. 성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임을 명심하십시오. 치료 방법은 약물요법, 수술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요법도 효과가 좋아서 제 환자 중 50%는 약물요법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므로 다소 불편하지요. 약이 안 듣거나 약물을 복용해도 병이 급속히 진행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수술요법을 시행합니다. 수술해야 하는 부위는 있지만 떨림증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술방법은 시상핵과피술과 뇌심부자극술이 있습니다. 최근뇌심부자극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대성 진전증은 떨림증이 주 증상이며 모든 연령에 걸쳐서 발생하는 드물지 않은 운동장애 질환입니다. 이 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를 하면 90%이상완치 확률이 있는 질환이므로 떨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떨림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투기지역내의 소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하여 설명해주시지요.

A 투기지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의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주택의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실거

래가에 의한 과세보다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급연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형주택의 범위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와 기본적으로 일치시켜 아파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로 하였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70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형주택일지라도 같은 혜택을 배제하고 자 기준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지역은 2종류가 있으며 여기서 설명하는 투기지역은 주택 및 부속토지의 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부동산 투기지역(주택의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원래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급연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과세 방침과는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감사의 말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4회 광릉숲 문화의 거리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으로 대신함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릉숲 문화의 거리 정월 대보름 행사가 내실있고 알찬 전통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을유년 새해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 지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5.2.25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회장 유왕현 정월 대보름 축제 위원회 위원장 박춘범

직동1리장 원희재, 직동3리장 박혁용, 고모1리장 한창성, 고모2리장 이진주, 고모3리장 이부형, 이곡1리장 이용석, 이곡2리장 윤여형, 직동1리부녀회장 김정희, 직동2리부녀회장 방희수, 직동3리 부녀회장 신화자, 고모1리부녀회장, 박음선, 고모2리부녀회장 이경희, 고모3리부녀회장 조윤주, 직동1리새마을지도자 김중하, 직동2리새마을지도자 박귀용, 직동3리새마을지도자 박영범, 고모1리새마을지도자 권혁화, 고모2리새마을지도자 이창목, 고모3리 새마을 지도자 박덕준, 소흘읍 직동리, 고모리, 이곡리 주민 일동 배상

